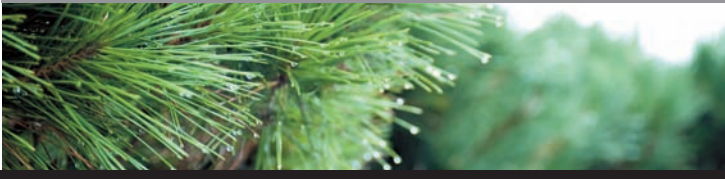


## 5 >> 교수사회 대표 선거 진행



## 7 >> 우리학교 꽃 이야기 18: 소나무



## 학사다이어리 - 정기강의평가 실시

기간: 12월 1일~26일  
대상: 양캠퍼스 재학생 전원  
\*강의평가 실시 학생은 12월 15일부터 성적입력 완료시 성적조회 가능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12월 31일부터 성적조회 가능

# 당선 ‘오늘의 경희’ ‘하:들’ ‘ALLFami’

## 서울캠 총학·총여·총유 선거결과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서울】각각 단선으로 치러진 총학생회(총학), 총여학생회(총여) 총유학생회(총유) 선거결과, 총학에 ‘오늘의 경희’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총여에 ‘하:들’ 선본이 당선됐다. 총유는 투표율 미달로 투표일이 27일까지 연장되는 우여곡절 끝에 ‘ALLFami’ 선본이 당선됐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진 ‘제47대 총학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11,883명 중 51.30%(6,093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오늘의 경희’ 이정미(아동가족학 2012) 정후보와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후보가 찬성표 75.03%(4,574명), 반대표 19.5%(1,189명)로 당선됐다. 당선이 확정된 직후, 이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응원해주신 많은 학우들의 눈빛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 1년간 더 많이, 또 더 자주 소통하는 총학생회장이 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제28대 총여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6,204명 중 52.13%(3,234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들’ 선본의 금혜영(아동가족학 2012) 정후보와 이바름(한약학 2013) 부후보가 77.92%(2,520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금 당선자는 “저희를 선택해주신 학우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저희의 공약에 대한 응원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당선자들은 오는 2015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제5대 총유 선거’의 경우, ‘ALL

Fami’ 선본의 오아람(무역학 2012) 정후보와 마명원(컨벤션경영학 2013) 부후보가 단선으로 출마했으나 예정된 투표일이었던 지난 26일까지 유효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투표가 하루 더 연장됐다. 이는 2011년 총유학생회가 출범한 이래로 처음있는 일이었다. 결국 연장 투표 끝에 투표율 50.89%로 가까스로 넘겨 개표가 가능했다. 개표 결과 86.01%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오아람 당선자는 “선거와 투표기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너무 힘들었는데, 결국 잘 돼서 기분이 좋다”며 “어렵게 당선된 만큼 더 열심히 일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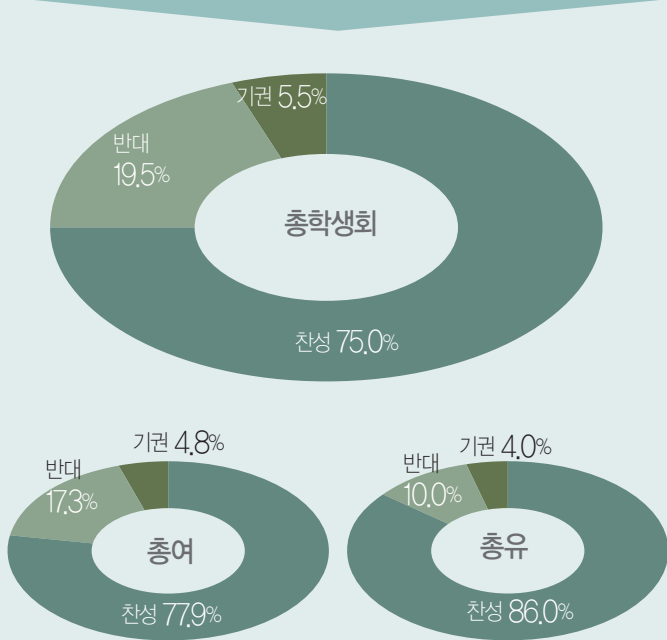
한편, 처음으로 도입된 전자투표제의 경우 우려와 달리,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됐다. 특히 투표함 이동부터 검표와 개표까지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개표과정이 원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1.7%pt 낮아졌다.

투표 시작 첫날인 24일, 총학과 총여 각각 24.72%, 23.05%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26일 투표율은 전날 대비 10%pt 상승하는데 그쳤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전체 유권자 중 각각 19.9%와 17.4%에 달하는 정경대학과 경영대학의 투표율이 평균보다 저조한 점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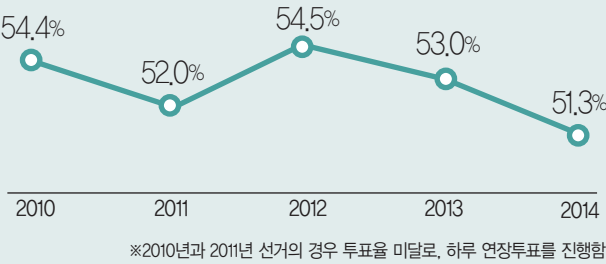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이량(사학 2008) 위원장은 “전자투표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무사히 마친데 의의를 둔다”며 “미흡했던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앞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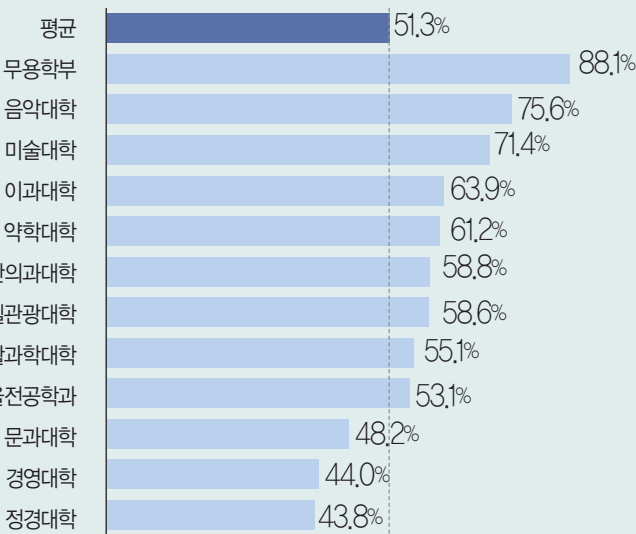
## 2014 총학·총여·총유 투표결과



## 2010-2014 서울캠 총학 투표율



## 2014 서울캠 총학 단과대학별 투표율 및 결과



## Newsmaker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용혜인 정치외교학(2009) 양



##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양 혐의 전면 부인

이사는 기자 dlttdms77@khu.ac.kr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세월호 참사 관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 용혜인(정치외교학 2009) 양의 첫 공판이 지난 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이날 세월호 참사 침묵행진을 제안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 양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용 씨가 서울광장 주변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후 두 차례의 집회에서도 인도와 차도를 점거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교통을 방해했다”라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용 양 측은 “신고했던 장소를 통해 가려 했으나 경찰이 이를 먼저 막아섰다”라며 “집회 신고시간 또한 정확히 지켰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학주보는 지난 11월 28일 용 양을 만나 재판과 관련된 입장을 들어봤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현재 기소이유는 지난 5월 18일과 6월 10일, 6월 28일 세 차례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니다. 추모행사는 관혼상제에 관련된 것으로 집회신고가 불필요하다. 하지만 경찰이 침묵시위 중 협조를 요청해 집회로 신고한 뒤부터, 신고범위를 벗어났다고 잡아가기 시작했다. 특히 5월 18일에는 집회 신고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진압했다. 6월 10일 추모행진 역시 집회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6월 28일의 경우 해산명령을 듣고 나오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기소가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맞춰 이뤄진 것을 두고 문제제기했다고 들었다.

“지난 10월 31일 기소됐다. 반년 동안 묵혀뒀던 사건을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함께 기소하는 것에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는 끝났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더불어 이제 기소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생각도 든다.”

-세월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예전에 비해 관심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국민 간담회가 하루에 10건씩 꾸준히 열리고 있다.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 잊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4학년이다. 진로에 대한 걱정이나 압박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불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모활동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하지도 않는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세월호 특별법 타결과 참사 200일 추모행사 등만 보고 지냈기 때문에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다. 수사기록 등도 제대로 공유가 안 돼서 아직 변론 준비도 다 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진상조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이다. 우리학교 학우들도 관심 갖고, 힘을 모아야 가길 바란다.”

용 양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15년 1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세월호 참사 274일이 되는 날이다.

# 그들도 아주 웃겨?! 루쉰 《고사신편》

##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㉔

배도임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루쉰(魯迅, 1881~1936)은 20대에 의사가 되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 때 ‘환등기 필름’ 속에서 중국의 비참한 현실과 정신이 마비된 동포를 보고, 사람들에게는 정신의 병이 훨씬 큰 문제이며, 정신의 병을 고치려면 문학밖에는 없다고 깨닫는다.

이후 루쉰은 한 친구와 ‘쇠로 된 방[鐵屋]’의 비유를 들어 중국의

미래, 즉 ‘희망’을 논한다. 그리하여 중국 최초의 현대 백화소설인 「광인일기(狂人日記)」를 써서 진보적인 잡지 《신청년(新青年)》에



루쉰은 ‘정신계의 전사’가 되고자 했다.

발표한다. 그는 첫번째 소설집 《외침(吶喊)》(15편 수록, 1923), 두번째 소설집 《방황(彷徨)》(11편 수록, 1926)과 세번째 소설집 《고사신편(故事新編)》(8편 수록, 1936)을 출간하였다.

첫번째 소설집의 제목인 ‘외침’은 중국어로 개전의 북소리가 울리면 선두 병사들이 적을 향해 돌진하면서 외쳤던 함성을 가리킨다. 이는 어리석은 민중을 각성시키고 중국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계의 전사’가 되고자 했던 루쉰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3년 뒤에 출간한 두번째 소설집은 40대 중반

에 이른 그의 고뇌와 ‘방황’이 드러난다. 세 번째 소설집은 옛날이야기를 ‘새롭게 쓴 것’이다. ‘새롭게 썼다’는 재해석하고 재평가했다는 말이다. 루쉰은 코믹화를 그리듯이 중국 신화전설 속의 영웅과 성현들을 불러내되, 그들의 ‘위대성’과 ‘도덕성’을 가차 없이 벗겨내어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였다. 《고사신편》은 1936년 10월 19일 그가 사망한, 그 해 1월에 발간된 것이다.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 대학주보 온라인 ‘이슈스트림’ 서비스

(media.khu.ac.kr/khunews/issue\_stream)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흐름과 맥을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학주보는 각 키워드별 관련 기사를 시기순과 호응도순으로 정리해, 독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슈를 읽어낼 수 있도록 ‘이슈스트림’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학 특성화사업 칼럼

인류사회 공헌을 위한 교육과 실천 중심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 서정권 부단장의 ‘글로벌 인재 키우는 연수·봉사’ >> 6면

